

地方文化가 地域發展에 미치는 影響

Relationship between Local and Community Development

金 南 宣

(大邱大學校 地域社會開發學科 教授)

<目 次>

- | | |
|-----------------------|---------------------|
| I. 序 論 | |
| II. 文化와 社會發展과의 一般的 關係 | IV. 地方文化育成을 통한 地域發展 |
| III. 地方文化發展의 沮害要因 | V. 結 論 |

<ABSTRACT>

Thes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find 1)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culture and community development 2) how local culture affects community development 3)the variables related to local culture that affects community development 4)the direction for improving local culture for community development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At first, local culture should not be controlled by government. Second,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must train local workers. Third, local culture is to be specialized. Fourth, local mass media should attend at improving local culture and community development

I. 序 論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지방문화와 지역발전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지역발전은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지역은 그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받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관습이나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구성원들의 관습적 행위와 그런 행위의 산물을 문화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문화라는 메카니즘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는 한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문화가 인간행위의 산물임과 동시에 사물을 지각하고 판단하는 준거라고 볼 때 지방문화는 지역주민의 사고유형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척도가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 정책의 결과 오늘날 신흥공업국의 대열에 참여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민주화의 열기와 함께 획일적 사고를 탈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의 활성화 문제가 각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90년대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이러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발전의 추진력으로서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숨결속에 생동하는 문화가 곧 지방문화이기 때문에 지방문화의 육성은 곧 그 지역의 의식을 통합시켜 지역민의 활동에너지를 결합시키게 됨으로써 그것은 지역사회적으로는 그 지역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물질적 측면에서는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에 관련된 행정과 시설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균형발전 또는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문화와 지역발전과의 관계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본다는 것은 한국적 현 상황에서 매우 바람직한 과제로 보인다. 그러나 본 주제의 방대성으로 보아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다분히 서술적이고 방향성을 중심으로 본 내용이 전개되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특히 지방문화의 포괄적 특성 때문에 지방문화와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지역발전이 지역을 배경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두 변수와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연계시키려 한다.

II. 文化와 社會發展과의 一般的 關係

1. 文化의 社會的 概念

문화에 대한 사회적 특성과 정의는 다양하지만 사회과학에서 쓰여지는 문화라는 개념은 인류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자간의 문화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게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그 강조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문화에 대한 개념은 인류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어지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Edward Tylor이다. Tylor는 그의 저서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에서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Tylor, 1971: 1) 그 내용을 보면 “문화란 지식, 믿음, 도덕, 법, 관습을 포함하여 사회성원으로서 사람이 습득하는 모든 능력과 습관의 총체”라고 하였다.

이 정의는 지금까지 문화에 관해서 내려진 수많은 정의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하나의 고전적이면서 대표적인 정의에 속한다.

Tylor의 견해를 좀 더 분석해 보면 사회성원들이 사회생활의 과정을 통하여 배우고 공유하는 모든 것이 문화이면 한 사회의 총체가 문화인 것이다. 즉, 문화는 한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의 총체(totality)를 가르키는 말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에는 철학, 문학, 예술, 언어, 종교, 과학과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기구, 건물, 도로 교통수단 등 물질적인 요소도 포함되며 사회제도, 집단, 사회조직 및 지역사회체계와 같은 사회적 단위도 포함되고 있다(정홍익, 1989: 236-237).

사회학의 입장에서 문화에 대한 개념을 초창기에는 인류학적 입장을 도입해 왔으나 나중에는 보다 한정적인 용어로 문화를 규정하게 되었다(Olsen, 1968: 54-57). 초기에는 인류학에서와 같이 사회학에서도 사회활동의 행태적, 사회적, 상징적 현상을 모두 지칭하는 개념으로 문화를 사용하였으나 사회학적 입장에서 문화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 문화 개념에서 사회적 요소가 분리되고 있다. 이러한 분리는 문화가 어디까지나 개념체계인데 대해서 사회는 기본적으로 행위체계라는 구별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

문화속에 집단생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사회조직에서 집단생활에 대한 개념이 생기므로 양자는 표리의 관계에 있으나 논리적으로 동일한 현상은 아니며 실질적으로도 각각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조직의 유형에 대한 규정은 문화에 포

함되거나 사회조직 자체는 문화가 아니다.

사회학적 문화개념의 다른 하나의 특성은 규범성이다. Tylor의 정의에서 나타났듯이 인류학에서는 과학, 예술, 종교, 철학 등 사회생활에서 얻어지는 모든 개념을 문화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사회학에서는 사회생활의 질서에 관련된 규범으로서의 문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류학에서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공동생활의 유형을 분석하고 있으나 사회학의 주된 관심은 사회질서이기 때문에 규범적인 측면에서 문화에 대한 분석을 집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회학적인 문화개념은 예술, 과학, 기술 등 비규범적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고 법규, 제도, 규범, 민습(folkways)으로 구성된 규범체계를 뜻하게 된다(Hort and Hunt, 1968: 49-50).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문화의 뜻은 사회과학의 개념과 크게 다르다. 일상생활에서는 문화생활, 문화시민, 문화민족 등에 문화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어들이다. 예를 들어 문화민족이라고 할 때는 문화수준이 높은 민족을 뜻한다고 보겠는데 이때 문화는 시와 소설, 희곡 등 문학과 미술, 음악, 무용 등 예술활동을 지칭하고 있으며 문화민족이라는 말 속에는 또 이러한 분야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문화가 우수한 민족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정신문화는 학술용어라기 보다 시대적 의미를 지닌 용어라 하겠다.

문화시민이라는 말은 문화민족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학이나 예술을 사랑 하는 시민이며 또한 예절바르고 교양이 있는 세련된 시민이라는 뜻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문화민족이란 문화시민은 다 같이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차별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문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점은 사회의 고유한 생활방식이나 규범체계이기 때문에 문화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이라는 사회과학적 용어와는 반대된다.

이와 같이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사회적 의미로 접근해 보았는데 이것은 문화가 지닌 속성을 파악해 봄으로써 더욱 문화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될 것이다. 문화의 속성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한상복 외 2인, 1985: 69-75).

첫째, 문화는 공유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행동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구성원들의 행위에서 다른 집단의 것과 구별되는 어떤 공통적인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다. 즉 문화의 속성은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동의 광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우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특정

의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에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둘째, 문화는 학습된다. 문화는 비유전적인 수단에 의해서 습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동양식으로서의 문화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 또한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전해 받았는지와는 관계없이 인간의 학습능력으로 성장과정에서 그가 접한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

셋째, 문화는 축적적이다. 인간의 지식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세대에서 이루어진 지식들이 추가되면서 문화의 저장창고는 팽창되어 왔다. 문자가 없던 시기에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문화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 왔지만 문자의 등장으로 문화가 책이나 문서의 형식으로 저장될 수가 있게 되면서 비록 그것을 기억해 내는 사람이 없어도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

넷째, 문화는 전체를 이루고 있다. 한 사회집단의 문화는 Tylor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등 수많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무작위로 또는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전체(a whole) 또는 체계(system)를 이루고 있다.

다섯째, 문화는 항상 변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과정에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항상 새로운 해결방법을 시도한다. 어떤 사람에 의해 발견된 새로운 지식이 사회생활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 이것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서 학습되고 전체사회에 확산된다. 이런 식으로 혁신(Innovation)들은 그 사회문화의 한 부분으로 수용되고 굳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런 혁신들은 문화의 한 다른 부분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인 변동을 유발하게 되어 전체로서의 문화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현상은 변동의 원인이 한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지만, 문화변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즉 문화간의 접촉으로 전파되어 들어온 문화요소가 기존의 문화요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문화의 변동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든 간에 변동은 문화의 기본적인 속성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문화는 그 자체가 같은 관념체계에서 벗어나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화는 인간집단의 사회생활에 깊숙히 연관되어 질서있는 사회변화로 유도하거나 또는 사회변화에 따라 문화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함수적 관계에 있다. 그것은 곧 사회발전은 그 사회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는 곧 사회의 현

상이기도 하다.

2. 文化와 社會發展과의 關係

위의 내용에서 볼 때 문화 또는 문화체계가 변동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의 변동은 그 사회속성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어 그것은 곧 사회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인간생활에 유익하게 전개되면 그것은 사회발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기술, 경제, 정치, 사회구조, 신앙 등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은 시간을 통해서 보면 각 부분들간에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계속되면서 그 사회의 문화체계가 운영된다(한상복 외, 1985: 401). 각 부분은 서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한 사회의 문화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 또는 문화요소들이 시간을 통하여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계속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문화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관련된 중요한 변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발견과 발명, 발명과 발견은 문화변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것이 수레, 쟁기, 및 컴퓨터의 발명이나 새로운 섬의 발견 등 구체적인 대상물인 아니면 기독교, 이슬람교, 공산주의 또는 어떤 관념적 형식이든 발명과 발견은 문화과정에 새로운 하나의 문화요소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새로이 등장한 문화 요소는 기존의 문화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화변동을 일으켜 사회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둘째, 전파과정(최인학, 1986: 80)이다.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그 사회안에서 발생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다른 사회로부터 문화요소들이 전해져 온 것들이 많다.

한 사회의 문화요소들이 다른 사회로 전해져서 그 사회의 문화과정에 통합되어 정착하는 현상을 문화의 전파라고 한다. 문화의 전파는 단지 특정한 문화요소의 전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받아 들여지는 사회의 문화과정에 등장하여 이미 존재하는 문화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유발시킨다. 이런 점에서 전파는 문화변동의 중요한 자극제가 되어 결국 그 사회발전에 중요한 원인이 되게 된다.

셋째,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최인학, 1986: 181)이다. 문화의 혁신은 그 변화를 일으키는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구성원들이 모두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것을 사회적 수용이라 한다.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느 특수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변화요소라면 그것은 개인의 습관(habit)이나 이탈적 행동(deviant behavior)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변화의 요소가 구성원 모두에 의해서 수용되기 어려울 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그것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문화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그 문화는 그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문화의 통합이다. 문화의 통합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지역간의 갈등 또는 분쟁 심지어 전쟁까지도 일으키게 되지만 긍정적으로 통합되게 되면 그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서구식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그동안의 「우리」라는 개념은 동족, 친족 나아가서 마을 사람이라는 경계를 벗어나 시민, 국민, 세계인이라는 개방된 의식 구조로 변하게 되어 국가발전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문화와 사회발전과의 관계는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하여 불가분의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곧 문화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지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지방문화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게 됨은 그 지역의 발전에 관련된 제반 요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지방문화의 발전은 곧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방문화 발전에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을 제시하였다.

Ⅲ. 地方文化發展의 沮害要因

1. 地方文化認識의 問題點

1) 지방문화가 중앙권력 도구화가 되어왔다

문화란 역사성과 사회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역성이 강하다(김정호, 1988: 197-204). 우리가 흔히 동양문화 또는 한국문화라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출발은 한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란 매우 도덕적인 지역성을 갖는 셈이다. 그 지역을 확대해 하나의 문화권으로 부르는 것은 구체적 내용보다 전체적인 공통분모만을 골라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권력집중이 중앙에 있는 나라일 수록 문화의 지역성과 개별성을 없애려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겪어온 과정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새마을 운동의 경우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방개량, 부업개량 및 의식구조의 개선을 꾀하려 했다. 뿐만 아니라 공업우선정책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방수준에서 고귀하게 여겨진 공동체 의식을 파멸시켜 놓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의 특성인 유기체처럼 기능적 변화로 지방문화가 변하지 못하고 지방주민의 내면에는 옛것(공동체)과 외면에는 강한 개인주의가 팽창되어 이율배반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옛것과 새로운 것의 가운데서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지역주민의 자주성 결여이다

문화란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법칙을 뜻한다. 환경이란 지리적, 인문적 환경을 포함하며 사회적 환경도 포함한다. 사회적 환경은 물론 더 넓은 범주의 국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지역적 특수성이란 바탕을 벗어나 국제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나타난다. 문화에는 지역적 특수성 못지않게 역사적 산물로서의 집단성이나 민족성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구촌” 또는 “세계는 하나”라는 제국주의적 성격을 지닌 용어에 매료되어 지역적 적합성과 정통성을 외면하고 무조건 선진국의 흉내를 내는데에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뿐만 아니라 지방 주민은 그 지방의 독특한 말씨, 또는 아름다운 행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 중심의 사고방식에 얽매어 그 자신의 적합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민족과 지역에 따라 문화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이치를 무시할 때 자기존립마저 위협받는다. 한계인식을 가져야 문화의 자주성이 나타난다. 이같은 자아인식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서 자주적인 문화주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문화의 창조성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못할 때 무의식 상태의 모방문화는 바람직한 의식마저 마비시키고 문화적 최면상태에서 연연한 식민문화를 답습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문화적 노예상태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배계층의 자주성 결여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수도권 국제문화의 창구 구실을 할 수밖에 없다. 폐쇄된 국가간의 교섭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외래 문화 접변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더구나 서울에는 지배계층이 집중해 있고 지배계층의 권위유지를 위해 일반 국민과 다른 문화를 형성하려는 속성을 발휘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지배계층은 국민간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보편성과 전통성을 버리고 외래적 생활 양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선민 계층임을 과시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서울은 특히 이같은 속성이 강한 곳이다(김정호, 1988: 200-201).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필요한 방향으로 일반 지방 주민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문화주도 계층은 문화취면 상태를 제대로 자각 하지도 못하고 민족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의식을 전근대적이라고 비웃거나 시골티라고 알보는 외래문화의 식민화에 앞장서 왔다.

시골 사람들은 서울 중심의 생활양식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으로 자신들의 문화에 가치를 덜 두게 되었으며 특히 각종 매스컴(T.V, 라디오, 신문)은 우리의 전통적인 지방문화육성보다 외래문화 보급에 열을 올리게 되어 지방문화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것은 알게 모르게 지배계층의 지배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地方文化行政 및 施設의 問題

지방문화육성은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그 육성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방문화 육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문화시설운영, 재정상의 문제점을 몇가지 제시 해 보겠다.

1) 지방문화 관련행정의 문제점

지방문화의 행정은 지방문예진흥 위원회와 자치단체의 전담행정기구 등의 행정조직이 있다. 직할시와 도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예행정의 최상위 기관으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과 문화예술에 관련된 일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행정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의례적으로 연 1~2회의 회의를 통하여 문화행정의 내용을 소개 받는데 그치고 정책 활동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국회사무처, 1990: 198). 현재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위원회 활동이 전문위원을 두는 규정이 있으나 이 제도는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문화예술 전문가가 문화행정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실제로 그 지방의 문예부흥계획에 영향을 전혀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리고 시와 군 단위에는 이러한 위원회마저 없는 형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는 자치단체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상

당히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직할시와 도 단위에서는 원래 문화공보담당관 아래의 문화계가 담당 기구였다가 1989년 10월부터는 직제개편에 따라 내무국의 문화예술과에서 맡고 있다. 시단위에서는 문화, 공보, 관광, 문화재의 업무가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맡고 있다. 군의 경우에는 시와 유사하게 문화공보실의 관장하에 공보, 문화, 관광, 문화재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지방문화시설 운영 제정의 문제

지방문화시설에는 문화원, 예총산하기관, 박물관, 도서관 및 각종 공연장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시설인 문화원과 예총산하기관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다.

지방문화원이나 예술지회 및 지부는 민간단체이지만 운영비와 사업비의 대부분을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문화부와 문예진흥원은 지방문화원에 대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시설 및 건물대여,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지방문화원을 지역사회의 문화축매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것인데 현재의 문화원, 예총산하 기관은 이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시설과 재원 및 전담요원이 부족하여 지방문예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함으로써 독립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문화를 순수하게 발전시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IV. 地方文化育成을 통한 地域發展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문화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육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오늘날 탈이데올로기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각국의 문화가 물 밀듯이 들어오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뿌리인 공동체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지방문화의 재인식과 아울러 그 육성을 서둘러야겠다. 이것은 곧 그 지역사회발전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경제우선 정책으로 인해 물질 지배적 사회체계에서 우리의 공동체 생활의 파괴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정신과 이웃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어 인간의 참다운 행복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문화를 건전하게 육성시킴은 곧 인간다운 삶의 장을 마련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참다운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지방문화의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육성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地方文化에 대한 變化

지금까지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흔히 “서울로 올라가고 지방으로 내려 간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이것은 지방적인 것은 촌스럽고 덜 문화적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을 의미한다. 중앙과 지방이라는 개념은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중앙은 전부이고 지방은 부분이라고 인식을 갖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 밑으로부터의 우리 것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나가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주민의 욕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지방문화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양식이기 때문에 그 생활양식이 고정될 수가 없다. 따라서 지방문화도 그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바탕을 두고 프로그램화 되어야 한다. 지방별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지방행사에 지방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그 지방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화를 누리하고자 함은 인간의 기본적인 문화적 욕구이며 특히 산업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증대하고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더욱 욕구가 다양해진다. 따라서 지방문화 프로그램개발의 근본은 주민욕구평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2) 문화촉매자를 양성 및 보급해야 한다.

지방주민들의 지방문화참여는 매우 피동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그 문화활동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촉매자는 각종 문화활동 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알게 해 주며 아울러 주민과 문화활동과의 연계를 시켜주는 중간매개인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촉매자는 피동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주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내용에 직접 접근하게 함으로써 자아발견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누리게 해준다. 문화촉매자 육성 및 보급방법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공을 한 사람으로써 지방문화 관련기관에 배치시키거나 문화행사가 있을 때에만 그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다.

3) 문화공간개념이 변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문화활동 참여비율이 크게 신장되리라 생각된다(국회사무처, 1990: 205). 따라서 기존의 문화시설만으로는 수용의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문화공간의 소규모화와 사회시설의 문화공간화, 나아가 통합시설이 요구된다.

건축미를 갖춘 문화시설의 거대화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너무 격리되어 있는 실정이며 문화 내용면에서도 소수계층의 전유물로되어 계층간의 위화감만을 조성하는 역기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생활 속의 문화향유를 위해 문화시설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 기존의 사회시설들은 지역문화계획으로 끌어들여 문화활동의 범위와 이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더욱이 주거공간이 확대되는 추세속에 새로 건설되는 주거지역에는 시설의 통합화를 시도하여 주민들이 한꺼번에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시설화(스포츠, 교육, 상업, 문화 등)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공간이 어떤 시설을 갖춘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속에서 탈피하여 거리, 시장, 광장, 옛건물, 공원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문화공간이라는 생각속에 문화는 사람있는 곳을 찾아가는 공간개념을 가져야 한다. 문화공간의 확대는 곧 문화활동의 확대 또는 다원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홍보화 체제확립과 지역내의 문화계획협의체같은 다양한 문화분야 인사들로 구성된 조정 및 협력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는 문화가 문화예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광장, 대중매체, 교육, 경제등과의 연계속에 공동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의식이 확대된 문화공간 이해가 요구된다.

2. 文化의 特性化 獎勵

지방문화는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양식이다. 그리고 지방별로 주민들의 생활양식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므로 주민의 생활양식을 배경으로 하는 지방문화로 발전되어야 한다.

즉 지방문화의 특성화는 지역성을 내포하며 지역공동의 감정과 어울려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문화의 뿌리인 지역문화의 지역성을 너무 경시하였다. 강릉의 기념품과 대구의 기념품이 같은 것이라면 분명 지역성을 상실한 상업화 및 획일화의 결과이다. 그러나 지역문화의 특성화에 집착하여 전통의 것에만 너무 치우치면 지역간의 이기주의화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의미와 상징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

리 연령층이나 계층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주민들의 흥미를 끌고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대중매체 및 사회단체들과 연계프로그램화 해야 한다. 특히 문화재정착면에서도 지방문화가 관광개발과 고용 증대에도 기여할 때 지역문화의 특성화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그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文化交流의 擴大

지역문화간의 교류는 상호이해 증진의 정신아래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질성을 배양해가는 바람직한 문화변동이다.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은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며 이것은 지역간의 문화교류에서 증진된다.

지방화시대에서는 지역문화의 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많아져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가 잘못되어 지역이기주의화될 때 지역문화는 고립되어 그 발전이 저해됨으로써 그 지역발전에도 크게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간의 문화교류가 지역간의 경쟁을 유발할 소지가 많으며 계획의 중복 등을 가져와 국가적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방편으로 지역간 문화교류는 자매결연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다. 대·중·소도시, 시농간 상호결연 운동으로 보다 구체적인 상호 관심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도 있다.

4. 地方教育期間 및 大衆媒體의 役割增大

지역화운동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는 지역교육계획의 수립이다. 교육은 문화전승의 기능과 지적 능력의 배양기능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힘이며 그것이 곧 지역발전을 이루어가게 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지방이 걸어온 역사와 지역환경에 관한 체계적 연구와 더불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과과정의 수립은 지방문화진흥의 기본적 장치이다.

특히 지방대학은 그 지역문화를 계발하고 지방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광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치로는 전파매체를 포함한 대중매체의 활용이다. 지역성과 공동의식 및 공동규범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는 지역방송 또는 지방신문은 그 지역 주민과 관련된 생활 뉴스를 개발하고 주민의 생활속에 나타난 문제점을 부각시켜 이를 시정하는 등의 주

민의 이익과 의사를 과감히 반영해야 한다. 또 지역방송 프로그램은 지역사정에 밝은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방문화의 형성과정과 그것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밀도있게 다루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제도적 측면에서 현재 직할시와 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문예진흥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성격을 심의, 의결기관으로 하여 위원회에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사를 포함시켜 전문위원제도를 두어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문화활동을 활성화 하자면 자금의 문제가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은 물론 그 지방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협력에 의한 “기업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해 기업의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주적이고 환경적응적인 문화를 육성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일체감과 그 지역 발전을 크게 신장시키게 될 것이다.

V. 結 論

지방문화와 지역발전과는 특수한 통합된 개념이다. 지방문화는 지역과 결합된 문화이며 단순히 공간상에 산재해 있는 문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즉 지역주민의 숨결속에 생동하는 문화가 지방문화이며 이것은 지역의식을 통합시키는 지역정신의 표출이며 지역적인 삶의 방식이다.

지방문화는 역사와 지역환경이 내포한 이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공간적 다양성을 띠게 된다. 지역주민의 태도가 하나로 융해될 때 지방문화는 주민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정신적 단합을 일으킨다. 정신적 단합은 향토애로 승화되고 지역적 긍지를 고취시킨다.

이것은 곧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문화의 발전은 곧 그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지방문화발전에 대한 저해요인이 많아 그 지역발전에 크게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문화 이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진정한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방문화발전방향을 요약하여 그 제시를 통하여 지역발전의 방향을 유추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문화는 중앙권력도구화로부터 탈피하여야 한다. 중앙권력은 지방문화의 활성화가 지배권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여 문화의 획일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발전의 적(敵)인 획일성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도입이 요구된다. 그것은 하향식 문화발전이 아니라 상향식 문화 발전이다. 이것은 국토공간을 추상적 기능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생활과 역사문화가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실제적 장소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둘째, 문화축매자의 양성이 요구된다. 지방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방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시켜줄 지방문화축매자를 양성하여 그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문화의 공간개념이 변동되어야 한다. 문화시설의 거대화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너무 격리되어 특정 소수계층의 전유물로 전락됨으로써 주민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생활속의 문화향유를 위해 소규모라도 주민이 이용 가능한 곳에 설치되어 최대한의 주민 참여가 일어나도록 한다.

넷째, 지방문화의 특성화를 장려해야 한다. 지방의 풍토와 역사속에서 생성되어온 전통문화는 소중한 지적 유산이므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생활의 윤택함과 지혜를 제공한다. 따라서 그 지방의 열이 담겨 전승되어 오는 문화요소를 발굴하여 그 특성적 내용이 보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특성은 그 지방의 주체이며 중요한 생활의 기둥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방간의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지방간의 문화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시대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이해의 증진으로 지방문화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게 되어 그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여섯째, 지방교육기관과 지방 대중매체를 최대한 활용한다. 지방문화를 계승 및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방의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교육은 문화전승의 기능과 지적 능력의 배양기능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힘이며 그것이 곧 그 지역발전을 일으키는 중요한 첩경이기 때문이다. 한편 그 지방방송 및 신문도 그 지방의 문화에 관련된 생활뉴스를 개발하고 주민의 생활속에 나타난 문제점을 부각시켜 이를 시정하는 등의 주민의 이익과 의사를 과감히 반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문화의 육성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필연적으로 풀어야 하는 거대한 숙제인 것이다. 이것은 지방주민의 행복의 정도를 규명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이나 지배권력의 지배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그동안 국가경제 정책의 그늘에서 진정한 인간 삶의 기준이 허물어지는 아노미 현상을 일으키게 된 큰 원인 중의 하나도 문화에 대한 소홀 때문이라고 보면 지방문화의 육성은 곧 지역사회발전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끝내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 국회사무처, “지방문화행정의 활성화 방향”, 「국회보」, 국회사무처, 1990.
- 권태우외 1인, 「지방문화행정의 활성화 방향」, 법문사, 1983.
- 김광웅, 「사회과학연구방법」, 박영사, 1983
- 김남선, 「지역사회개발학개론」, 형설출판사, 1991.
- 김동일, 「사회문화론」, 문조사, 1989.
- 김세열, 「지역개발과 지역사회개발」, 창학사, 1980.
- 김열규 옮김, 「문화의 패턴」, 까치, 1988.
- 김영환, 「지역개발학개론」, 1989.
- 김일철역, 「사회변동론」, 탐구당, 1981.
- 김정호, “문화자치와 공동체의식 회복”, 「월간광장」 7월호, 1988.
- 김환동, 「현대사회학의 쟁점」, 법문사, 1983.
-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72.
- 박영한, “지역개발과 지방문화”, 「민족지성」, 5월호, 한국학술진흥재단, 1988.
- 변시해, 「사회행정론」, 전영사, 1972.
- 설준규, 송승철 옮김, 「문화사회화」, 까치, 1984.
- 윤정기,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도서관」, 5~6월호, 국립중앙도서관, 1990.
- 이문용역, 「문화의 개념」, 일지사, 1981.
- 정인섭, “문화행정 개론”, 「행정논」, 제27권 제 1호,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1989.
- 정홍익, “문화행정연구”, 「행정논총」, 제27권 제1호, 1989.
- 최인학, 「문화인류학」, 새문사, 1986.
- 한상복외 2인,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 현 두,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삼영사, 1977.
- Bastide, Roger, *Applied Anthropology*, London : Croomhelm, 1973.
- Bennet, John W. and Others, *Some Uses of Anthropology : Theoretical and Applied*, Washington D. C : Anthropological Society of Washington, 1971.
- Bernard, H. R. and W. F. Sibley, *Anthropology and Jobs : A guide for Undergraduates*, Washington D. C :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1975.

- Horton. Paul B. and Chester L. Hunt, *Sociology*, N. Y : McGraw-Hill, 1968.
- Olson. Marvin E., *The Process of Social Organization*, N. Y : Holt, Rinehart and Washington, 1968.
- Tylor. E. B., *Primitive Culture :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Language, Art and Custom*, London : J. Murray, 1971.